

임동 방직공장의 새로운 부활을 꿈꾼다

기고

서현호

화가·미술학박사



얼마 전 마무리된 시립미술관장 선임 과정에서 지역미술인들의 관심과 의견은 분분했다. 예술인들에게 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런 일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필자의 과문 탓인지는 몰라도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광주 비엔날레관의 신축 계획에 대한 논의나 관심은 소홀한 것을 넘어 아예 실종된 것 같아 안타깝다.

보도에 의하면 임동 방직공장 부지가 국내 대기업이 기획한 복합문화상업시설로의 개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비슷한 시기, 예정된 비엔날레관 신축 부지도 결정이었다. 소식을 듣고 우려와 설렘이라는 이중적인 감정으로 와 닿았다. 걱정스런 부분은 한국 근대산업시설 유산으로 광주에 남아있는 방직공장 건물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반면 설렘이란 살아남은 방직공장이 비엔날레관으로 재배치됐으면 좋겠다는 필자의 바람이 어찌면 실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남아서이다.

우리도 이제 경제규모 10위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성숙한 문명은 그만큼 개발에 있어서도 깊이를 가져야 한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속도나 효율보다는 올바른 방향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란 의미다. 특히 역사나 문화예술사업과 연관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예술문화를 가꾸는 일에 자본 논리가 판친다거나 혹여 행정편의나 이권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광주 근대산업사회의 역사적 증거로 남아있는 건축물을 경제논리를 앞세워 없앤다는 것은 성숙한 판단이 아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설사 지금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된다 해도 과연 광주시민들에게 주어질 실제적인 이익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회의도 없지 않다. 경제적 효용성을 앞세운 개발이적으로 공동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은 착각이며, 환상에 가깝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낡고 용도폐기 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없애질지 모르는 방직공장 건물은 이미 개인 소유물로서의 의미보다는 시대의 산물로 그 존재가치가 크다. 근대와 과정을 함께 해온 민중의 땀과 눈물과 회한이 함께한 공동의 유산인 것이다. 물적 토대가 사라지면 여기에 얽힌 서사도 지워지기 마련이다. 장소가 품은 시간의 역사는 그것이 상처든 영광이든 단절보다는 계승을 통한 교감과 소통이 성숙한 역사 의식을 만드는 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위에 돌아온 문화가 결국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필자는 상상해 본다. 신축될 비엔날레관이 계획된 현 부지를 떠나 리모델링된 일신방직 건물로 대치된 이미지

를. 만약 나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बैं크 사이드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개조해 멋지게 성공한 영국 테이트 모던의 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생각해 보라. 멋지게 리모델링된 비엔날레관에 들어섰을 때 느껴질 수 있는 감동은. 추억의 건물을 배경으로 비껴서 있는 동안, 우리의 예술혼은 일순간 내 이웃의 애환이 되었다가, 때로는 옛된 여공의 모습이 스치기도 할 것이다. 그러다 문득 오래 공장 터를 지켜온 플라타너스를 조우하다보면 5·18이라는 도도한 역사적 진실을 회상하는 자리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스토리가 꿈틀대는 장이야말로 진실로 살아있는 예술의 장이 될 것이다.

예술이란 바로 내 주변 삶과 연관이 깊으며 깊을수록 그 지평은 넓어지기 마련이다. 넓혀진 지평은 다시 우리를 더 풍요로운 상상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삶이 열기설기 엮여 만든 스토리의 총화가 곧 문화가 되고 예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듯 자연스럽게 연결된 이야기 속에는 늘 휴머니즘이 깃들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왜 문화예술을 잘 가꿔 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임동 방직공장과 비엔날레관의 만남, 그 자체 상징성만으로도 이미 예술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덕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고 박안수 남광주농협 사외이사·경제학박사

전남에 의과대학 개설을 희망하며

바야흐로 졸업과 입학 시즌이다. 설레고 희망적이어서 하지만 현실은 왠지 그렇지 못한 듯싶다.

우리 지역에서 올해 초. 중. 고등학교 44여 곳의 입학생이 단 한명도 없어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한다.

요즘 지역 교육당국에서는 농·산·어촌 유학을 권장하는 공익성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뉴스에 의하면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내과 의사를 채용하고자 월 3천만 원의 급여를 제의했으나 두 차례나 지원한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산청군은 조선시대 한의학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런 연유로 현대에 와서는 한의학이 발달된 지역이며 여러 차례 동의보감과 허준을 배경으로 드라마나 영화가 촬영된 고장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위 SKY대(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이공계 학생 1800여 명이 자퇴하였고 일부 반도체학과 신입생 합격자 다수가 입학등록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자퇴와 미등록자의 정확한 이유를 밝혀낼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추측하건대 의학계열로의 재입학을 예측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우리지역 의학계 학생 67명(3년간)이 수도권 의학계열 쪽으로 재입학을 위하여 자퇴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에 의하면 전남지역의 수술 입원환자 절반 가량이 타 시·도 병원으로 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시설도 가장 열악하며 전남도내 시·군별 의료서비스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남지역의 의과대학병원 개설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전라남도도는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총선과 지역에 전폭적인 지지기반을 둔 정당에서 세(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번의 정권을 창출했음에도 늘 구호로만 그쳤던 형국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행히 최근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보건복지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확충 등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면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쏠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지역에서 일할 의사는 지역에서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지역 의과대학도 신설하자는 여론도 뜨겁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충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처럼 해당 부처에서 단독으로 정해질 못하고 의사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와의 정원 책정을 위한 끈질긴 협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정원 확대는 더욱더 어렵다고 한다.

역(逆)으로 이번 정부에서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개설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본다.

지방정부인 전라남도에서도 2백만 국민의 염원인 의과대학 개설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방송 등 언론에 공익성 광고를 하는 등 개설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 보인다.

다만, 전남도에는 목포와 순천에 각각 국립종합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지역종합대학에 의과대학병원이 개설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정지역을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어머니가 내 자식이 아니어도 좋으니 반쪽을 나누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솔로몬'의 지혜를 인용해서 우리 남도에 의과대학이 개설되기를 희망해 본다.

참고로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전남대 그리고 울산대의 경우처럼 동일 캠퍼스에 반드시 의과대학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개설되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젊은 청년들이 돌아와 지방소멸우려지역이 줄어드는 우리 전라남도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맑은 날씨를 보이는 2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에 목련이 피기 시작해 지나는 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낮 기온이 10도 이상을 기록하며 평균기온을 회복하는 등 당분간 고기압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서귀포=뉴스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 전 편 전연가독 리플라이니 쇼퍼석 (이플석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톤다마켓 총창로점 062-222-7733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1관	엔트맨과 와스프:퀸템메니아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2관	서치 2 바다 탐험대 옥토넷 육지수호 대작전
3관	엔트맨과 와스프:퀸템메니아
4관	카운트
5관	엔트맨과 와스프:퀸템메니아
6관	서치 2
7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상견니/매간
8관	어메이징 모리스/영웅/살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9관	카운트/TAR 타르/교섭

광주광역시 동구 총창로안길 12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